세대 갈등 해결을 위한 구비설화 기반 서사지도 구축 연구

김정희*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구비설화를 활용하여 오늘날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는 세대 갈등의 원인과 속성을 파악하는 데 관여하는 인지적 특성을 서사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서사에 인간관계 및 관계를 운영하는 방식이 드러나 있다고 보는 문학치료학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즉, 구비설화는 인간이 인간관계를 운영하는 방식의 원형을 서사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관계의 운영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단서를 탐색하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는 구비설화의 이러한 본질적 특성에 기반하여 오늘날 자녀 세대의 인지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서 서사지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며느리-시아버지 대립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구비설화에서 나타나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의 속성이 오늘날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세대 특성과 맞닿아 있으며 그 대립 양상이 오늘날의 갈등 양상을 포착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대립이 나타나는 설화<장자못>,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서사지도는 구비설화에서 인간관계와 관련한 화소를 추출하고 이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원하였다. 며느리-시아버지 대립담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세대 갈등 발생의 원인과 해결 방식의 차이를 포착하여 서사적 관계망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장차 세대 갈등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서사지도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세대 갈등, 며느리-시아버지 대립담, 구비설화, 서사지도, 문학치료

*인하대학교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Inha Univ. 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Asian Multicultural Studies)

접수일(2019년 7월 30일), 게재 확정일(2019년 8월 8일)

I. 서 론

본 연구는 구비설화를 통해 세대 갈등의 원인과 속성에 관련한 인지기제를 규명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활용할 수 있는 서사지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세대 갈등은 구성원들 간의 분열과 대립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세대는 인구학적 연령집단에 근거한 생애주기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1],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사건이나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가치관, 삶의 방식, 인지적 특성 등에 영향을 받아 형성하게 되는 추상적 집단으로 간주되기도 한다.[2] 세대 갈등은 세대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으로 명확하게 그 실체를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생애주기를 살아가며 상이한 가치관을 형성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세대 갈등이 혐오의 문제로 비화되며 그 심각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3]

세대 갈등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쪽은 대체로 부모 세대이다. 이는 부모 세대에 비해 표현의 수단이 다양하고 자기 주장을 드러내는 데 거침이 없는 자녀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때의

---

1) 이는 생애주기에 따라 성인기의 발달 단계를 제시한 Levinson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Daniel J. Levinson, 김애순 역,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참고.

2) 김현숙은 '세대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분되는 용어'라고 하며 '각 세대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사회, 정치적인 사건에 따라 각 세대마다 그 경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세대들의 가치관의 형성은 그들이 경험해온 사회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세대의 구분은 '사회, 정치적 사건' 등에 대한 경험의 정도의 차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김현숙, 「현대소설에 표현된 '세대갈등' 모티브 연구」, 『상허학보』 6, 상허학회, 2000, 400쪽.

3) 혐오의 문제가 비단 세대 갈등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며 배척하려는 사회 현상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 현상으로서 혐오의 문제 전반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본고에서는 다른 세대에 등 돌리고 배척하는 작동기제를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치기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부모 세대에 대한 불만을 혐오의 문제로 풀어가는 방식이 심각한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혐오라는 외피를 입고 있어 근거 없는 불만과 증오가 표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과 상대에 대한 특정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천착하고자 한다.

구비설화는 고도의 체계성과 함축성을 갖추고 인간의 인지구조를 스토리로 드러낸다.[4] 본 연구는 구비설화의 이러한 본질적 특성에 기반하여 오늘날 자녀 세대의 인지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서 서사지도를 활용하고자 한다.[5] 이를 위해 며느리-시아버지 대립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구비설화에서 나타나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의 속성이 오늘날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세대 특성과 맞닿아 있으며 그 대립 양상이 오늘날의 갈등 양상을 포착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대립이 나타나는 설화 가운데 〈장자못〉,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를 기반으로 하여 서사지도를 구축하고자 한다.[6]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장자못〉은 '신적 질서의 발현'으로 제시된 금기와 그에 대한 위반으로 파악하여 왔다.[7] 또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는 가부장적 질서

---

4) 신동흔, 「인지기제로서의 스토리와 인간 연구로서의 설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42, 한국구비문학회, 2016, 59-104쪽.

5) 구비설화를 활용하여 세대 갈등의 원인을 탐색한 선행 연구로 김혜미, 하은하의 연구가 있다. 김혜미는 세대 갈등을 법칙 대 법칙의 대립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작동기제를 관련 구비설화에서 탐색하였다. 하은하는 세대 간의 차이를 문화적 맥락에 기반한 설화 교육으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김혜미, 「초고령화 시대, 세대 갈등을 넘어 공존을 모색하다 -청소년의 세대 갈등 완화를 위한 문학치료학적 접근」, 인문한국연구소협의회 학술발표 자료집, 2019, 103-124쪽; 하은하, 「문화적 맥락의 차이에 따른 설화 향유의 한 양상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설화 교육 시론」, 『고전문학과교육』 3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67-97쪽.

6) 각 작품의 제목은 『문학치료 서사사전』에 수록된 것을 참고로 한다. 〈장자못〉은 『문학치료 서사사전』 3, 문학과치료, 2009, 2659-2674쪽,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은 『문학치료 서사사전』 1, 문학과치료, 2009, 961-968쪽,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는 『문학치료 서사사전』 1, 문학과치료, 2009, 1149-1156쪽 참고.

가 실용적 가치를 지향하는 질서로 변화하는 과정을 포착하고 있는 작품으로 보기도 하고,[8] 거대 배설의 변형으로 초인적 생산력을 가진 거인신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9] 이처럼 선행 연구는 개별 작품의 의미와 의의를 조명하는 데 천착하여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작품 간 상호 비교를 통해 각각의 특성을 드러내고 이를 기반으로 자녀 세대의 인지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설계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구축하는 서사지도는 남녀관계의 위기와 지속을 다룬 설화를 기반으로 구축한 서사지도의 다른 버전이다. 남녀관계의 위기와 지속에 대한 서사지도는 〈나무꾼과 선녀〉, 〈우렁색시〉, 〈용자 살리고 얻은 색시〉, 〈새털 옷 입고 왕이 된 남자〉 등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와 관련한 화소를 추출하고 이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환원하여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모티핌을 중심으로 배치한 것이다.[10]

서사지도의 구축의 과정을 정리하면, 첫 번째,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모티핌을 탐색하고, 두 번째, 모티핌별로 관계적 화소를 추출하고, 세 번째, 관계적 화소를 관계적 요소로 환원하고, 네 번째, 이를 약호화하여, 다섯 번째, 모티핌을 기본 뼈대로 하여 약호화한 관계적 요소를 배치한다. 그리고 약호화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관계적 요소가 서

---

7)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1; 최래옥, 『한국 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이 밖에도 〈장자못〉에 나타난 금기의 속성과 의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 목록을 생략하기로 한다. 본 연구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성에 입각하고 있어 '금기'에 천착하고 있는 연구와는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8) 정규식, 「〈방귀쟁이 며느리〉설화에 형상화된 지배 질서의 변화와 그 의미」, 『동남어문논집』 44, 동남어문학회, 2017, 313-335쪽.

9) 노영근, 「〈방귀쟁이 며느리〉 민담의 신화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회, 2003, 253-277쪽.

10) 김정희, 「남녀관계의 위기와 지속에 대한 서사지도 구축과 문학치료 활용 연구」, 건국대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본 연구는 이 논문에서 구축한 서사지도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문제를 다룬 설화 작품을 기반으로 고안한 것이다.

사의 주체와 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정도를 수치화하여 관계 그래프를 통해 표현한다. 서사지도는 관계적 요소를 배치하여 각각의 모티핌에서 관계적 요소가 어떤 영향 관계를 주고 받는가를 알아보는 데 유용하고, 관계 그래프는 관계적 요소가 관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

서사지도는 개별 작품의 서사에서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한 작품 간 관계망을 시각화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고안한 서사지도는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과 던데스의 서사 구조에 대한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문학치료학은 서사의 속성에 핵심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다기성[11]이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이는 서사지도의 핵심 전제가 되는데, 서사지도는 작품마다 공통으로 하고 있는 서사의 분기점과 그 분기점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며 펼쳐 나가는 다기적 양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12] 본 연구는 작품이 서사에 기반하고 있으며 서사는 '인간관계의 형성과 위기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13]라고 하는 문학치료학의 핵심 관점에 착안하고 있으나 서사지도의 구축에 대해서는 서사의 분기점보다 구조와 구성요소의 마련을 우선하였다.

서사지도의 기본 골격이 되는 구조는 '내용이 다른 설화들이 동일한 구조적 모델을 가질 수 있다'[14]고 보고 서사 구조를 기본 단위인 개별 모

11) 정운채, 「서사의 다기성(多岐性)과 문학연구의 새 지평」, 『문학치료연구』 23,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198-202쪽.

12) 문학치료학에서 서사지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서사의 분기점과 다기성에 주목하여 서로 다른 작품이 공유하고 있는 서사의 분기점과 그 분기점에서 내리는 있는 선택의 차이 등을 분석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는 그 목록이 방대하여 개별 논문을 나열하지 않는다.

13) 정운채는 '문학치료학에서는 서사의 근원이 되는 지점이 어디일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 가장 기본적인 서사의 영역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서사란 인간관계의 형성과 위기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의한 것은 서사의 근원이 되는 지점이나 서사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인간관계가 핵심이라고 본 결과인 것이다.'라고 하며 문학치료학에서 서사를 보는 관점의 핵심이 인간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52쪽.

14) 김화경, 『韓國 說話의 硏究』,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36쪽.

티핌(motifeme)의 결합으로 파악하는 던데스의 연구에서 착안하였다. 모티핌은 개별 작품의 특수성보다 여러 작품에 중복하여 나타나는 보편적 서사 구조에 주목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인간관계의 변화 과정과 결부하여 개별 모티핌을 '결합', '위기', '대응', '결과'로 보고, 서사지도의 기본 구조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는 세 작품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 내력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다. 이 작품들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이다. 서사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이미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티핌의 설정에 반영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되며 절연의 위기가 초래되고, 이에 대한 등장인물들의 대응이 나타나며, 그 결과가 관계의 상태에 반영된다.[15]

다음에서는 세 작품의 서사구조가 이러한 개별 모티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각 작품의 구체적 양상에 주목하여 인간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관계적 화소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사지도의 구성요소가 되는 관계적 요소를 추출할 것이다.

II. 관계적 화소에서 추출한 관계적 요소

1. 〈장자못〉의 관계적 요소

본고에서는『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59편을 발견하여 정리한『문학치료 서사사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그 중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

15) 「남녀관계의 위기와 지속에 대한 서사지도 구축과 문학치료 활용 연구」에서는 남녀관계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따라 '독신', '만남', '교감', '결합', '위기', '대응', '결과'가 모티핌이 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결합' 이후의 모티핌은 이와 일치한다. 이는 서사지도를 확장해 나가는 데 유용한 전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14편(모녀 관계, 부녀 관계, 주종 관계 등)을 제외하였다.[16] 총 45편의 자료 중 7편은 홍수가 일어난 후에 며느리가 돌로 변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지만 부자의 집이 물에 잠긴다는 결말은 일치하여 논의 대상에 포함하였다.[17] 본고에서는 〈장자못〉은 이를 제외하면 유형이 달라질 정도의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장자못〉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을 등장인물의 행동, 관계 맺기 방식 등이 드러나도록 각 모티핌에 해당하는 핵심 화소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설화 〈장자못〉의 핵심 화소

모티핌	관계적 화소
결합(결연)	인색한 부자 시아버지
위기	부잣집에 시주하러 온 중 시주하러 온 중에게 오물을 주며 조롱하는 시아버지 시아버지에게 조롱당한 중에게 미안해하는 며느리 재앙을 예언하며 며느리만 피신할 방법을 알려주는 중 며느리에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중
대응	중의 말대로 홀로 피신하는 며느리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중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는 며느리
결과	돌이 된 며느리 커다란 못이 된 부잣집

16) 본 연구를 위해 검토한 총 45편의 서지사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17) 7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최만교(남, 61), 〈영산 장자늪〉, 『대계』 8-11, 한국정신문화원, 108-109쪽, ②김일남(남, 69), 〈장자못 전설〉, 『대계』 6-8, 한국정신문화원, 52-53쪽, ③박석산(남, 70), 〈아침못 전설〉, 『대계』 2-2, 한국정신문화원, 353-355쪽, ④류태석(남, 67), 〈집터가 변해서 된 황지못〉, 『대계』 7-9, 한국정신문화원, 292-294쪽, ⑤김사형(남, 89), 〈부안읍 장자못 전설〉, 『대계』 5-3, 한국정신문화원, 141쪽, ⑥노봉현(남, 80), 〈중을 괄시하다 패가한 이야기〉, 『대계』 8-14, 한국정신문화원, 570-571쪽, ⑦정복련(여, 57), 〈삭실늪이 생긴 유래〉, 『대계』 8-11, 한국정신문화원, 168-170쪽.

1) 결합(결연) 모티핌의 관계적 화소에서 추출한 관계적 요소

위기의 발생으로 인물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각 인물의 특성이 두드러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갈등이 드러나기 전에 인물들에 내재해 있는 특성을 중심으로 관계적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 작품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화소는 '인색한 부자 시아버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아버지는 기본적인 힘으로 물질적 부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아버지는 자신이 차지한 물질적 부를 독점하기 위해 나와 타인을 구분하고 배척하는 폐쇄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시아버지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며느리는 중과 만나기 전에는 그 존재를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위기 이후에 움직여나가는 방식을 통해 어떤 힘, 태도, 성향을 가졌는지,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유추해볼 수 있다. 며느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우려고 한다는 점에서 덕성을 그 자질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자신의 뜻이 시아버지와 달라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중의 떠나라는 제안에 순순히 따르는 등 타인 중심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성향을 기반으로 타인의 의견 또는 제안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며느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안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설화 〈장자못〉의 결합(결연) 모티핌의 관계적 요소

관계적 요소	며느리	시아버지
힘	덕성	물질적 부
성향	타인 중심	자기 중심
태도	순종	폐쇄적
가치	안정	물질

2) 위기 모티핌의 관계적 화소에서 추출한 관계적 요소

〈장자못〉에서 며느리는 표면상으로는 시아버지와 갈등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제3자인 중의 등장으로 표면화된다.

시아버지에게서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감지하기는 어렵다. 이 모티핌에서 시아버지의 감정은 알 수 없는데,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소통이 단절되어 있어 며느리의 의견, 행동 등에 대한 시아버지의 반응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아버지는 제3자인 중과 갈등을 일으킨다. 시아버지는 시주하러 찾아온 중의 시주를 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물을 투척하여 조롱한다. 이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 배타적인 태도에서 기인한다.

중은 인색하기로 소문난 부잣집의 도덕성에 의혹을 품고 이러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찾아오는 신이라 할 수 있다. 중은 천재지변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부자를 방문하여 그 도덕성을 시험하고 파괴를 통해 타락한 부자를 응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의 의심은 확신이 되고, 중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재난에 대한 예언은 실현된다.

며느리 역시 시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며느리가 중을 돕는 행동을 통해 며느리가 지향하는 바가 시아버지가 지향하는 바와 상충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이를 시아버지가 알게 하지 않는다. 시아버지에게 들키지 않도록 중을 돕는 것으로 시아버지와의 갈등과 대립을 회피한다. 또한 이는 회피이면서 안주이기도 한데, 여기에서의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에 의탁하여 지내며 그 자신에게는 시아버지와 맞설 능력이나 의지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모티핌에서 시아버지의 능력과 제3자인 중의 감정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란으로 두고, 이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설화 〈장자못〉의 위기 모티핌의 관계적 요소

관계적 요소	며느리	시아버지	제3자
태도	회피	배타적	의심
행동	은폐	조롱	확인
감정	수치심	알 수 없음	·
능력	없음	·	파괴

3) 대응 모티핌의 관계적 화소에서 추출한 관계적 요소

이 부분에서 가장 부각되는 인물은 며느리이다. 며느리는 곧 일어날 재앙을 예견한 중의 말대로 집을 나선다. 중이 예견한 재앙이 많은 비가 내려 집이 잠긴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며느리는 높은 지대로 올라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다. 중은 여기에서 며느리에게 그때까지 맺고 있던 인연과의 단호한 결별을 요구한다. 중은 도덕적 타락과 오만의 근간이 되는 배금주의를 응징하려는 신의 현신이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삶의 방식에 예속된 채 살아가고 있는 며느리에게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살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큰 소리는 기존의 삶의 파괴를 표상한다. 큰소리에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중의 지시는 파괴되어 가는 것들에 대한 연민과 집착을 완전히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며느리는 집을 떠나면서도 온전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그 이유는 ①큰 소리에 놀라서, ②집이 걱정되어서, ③나 혼자 살아서, ④다시는 보지 못할까 봐, ⑤가정을 버릴 수 없어서, ⑥호기심이 들어서 등이다. 이유가 생략되기도 하지만 며느리의 죄책감,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이러한 표면상의 이유들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며느리는 기존의 삶과 새로운 삶의 중간에서 결국 발걸음을 멈추고 만다.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도 며느리는 자신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시아버지는 이 부분에서 그 존재감에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소멸의 순간까지 오만한 삶의 태도를 고수하며 그 삶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

다. 중의 현현으로 시아버지가 누리는 물질적 부의 부질없음과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면서 시아버지의 무능력이 부각된다. 시아버지는 기존의 삶의 방식에 제기되는 문제를 외면하고 오히려 조롱하여 그 벌을 받게 되지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엇도 벌을 피하는 데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표 4〉 설화 〈장자못〉의 대응 모티핌의 관계적 요소

관계적 요소	며느리	시아버지
태도	우유부단	오만
행동	떠나지 못함	안주
능력	없음	없음

4) 결과 모티핌의 관계적 화소에서 추출한 관계적 요소

이 부분은 위기와 대응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행동 방식, 관계 맺기 방식이 상태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모두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 신의 권능으로 벌어진 재앙이지만 시아버지에게는 중이 찾아와서 시주를 청했을 때, 며느리에게는 중이 재앙을 예언하며 떠나라고 했을 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씩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이르는 파멸은 그 자신에게 결정적 귀책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아버지가 이룬 모든 것은 물에 잠겨 그 흔적이 후세에 남아 경계의 뜻으로 남게 된다. 며느리 역시 시아버지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신념, 가치 등을 실현하려 하지 않고 회피하고 은폐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대가로 돌이 되어 후세의 경계가 된다.

〈표 5〉 설화 〈장자못〉의 결과 모티핌의 관계적 요소

관계적 요소	며느리	시아버지
상태	파멸	파멸

2.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의 관계적 요소

본고에서는『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8편을 발견하여 정리한『문학치료 서사사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18]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을 등장인물의 행동, 관계 맺기 방식 등이 드러나도록 각 모티핌에 해당하는 핵심 화소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설화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의 핵심 화소

모티핌	관계적 화소
결합(결연)	인색한 시아버지, 예지력과 천리안이 있는 시아버지 예지력과 천리안이 있는 며느리
위기	자녀의 생사를 점치러 온 사람 점을 잘못 보는 시아버지 시아버지 몰래 시아버지의 잘못된 점괘를 바로잡는 며느리(쥐의 농간으로 병이 난 아들 고치기, 무너지는 굴이나 건물에서 아들 꺼내기) 며느리가 점괘를 바로잡았다는 사실을 알아챈 시아버지 며느리를 죽이기 위해 찾는 시아버지
대응	시아버지를 피해 죽음을 가장하는 며느리(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위장하기, 개울물에 빠져 죽었다고 위장하기, 불에 타 죽었다고 위장하기)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아버지와 자기 중 누가 살아야겠느냐고 묻는 며느리 아내가 살아야 한다는 남편 시아버지의 능력으로 나타난 저승사자 저승사자 속여 시아버지 잡아가게 하는 며느리(시아버지 옷 걸어두어 저승사자 피한 며느리, 저승사자 대접으로 저승사자 피한 며느리, 곽 속에 숨어 저승사자 피한 며느리 등)
결과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시아버지 남편과 잘 사는 며느리

18) 본 연구를 위해 검토한 총 8편의 서지사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1) 결합(결연) 모티핌의 관계적 화소에서 추출한 관계적 요소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직접 보지 않은 일들을 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종류의 힘을 발휘할 수 있으나 성향, 사회적 태도, 추구하는 가치 등에 차이로 인한 대립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며느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기를 예견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방비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관계보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을 더 우선한다. 이러한 성향 및 태도가 위기에서 시아버지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행한 불의를 바로잡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데 힘을 발휘하는 데 반해 시아버지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의 유불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여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같은 속성의 힘을 가졌으나 힘의 정도나 위력에는 차이가 있다. 며느리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은 더 뛰어나지만 시아버지에게 위협이 될 만한 위력은 가지지 못한 반면,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의도를 한발 앞서 간파해내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며느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위력은 행사할 수 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위력을 앞세워 압도하려 한다. 시아버지는 그 자신의 권위를 우선하며 며느리와 경쟁의 구도가 형성되어 며느리로 인해 자신의 권위가 실추될 것을 경계한다.

〈표 7〉 설화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의 결합(결연) 모티핌의 관계적 요소

관계적 요소	며느리	시아버지
힘	예지력	예지력
성향	이성적 사고	자기 중심
태도	불의에 대해 반항	위압적
가치	정의 구현	권위

2) 위기 모티핌의 관계적 화소에서 추출한 관계적 요소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사이에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자녀의 생사를 점치러 온 사람'이다. 아들이 병으로 앓아누워 점을 보러 오기도 하고[19], 일이나 장사를 떠난 자식의 생사를 알고 싶어 오기도 한다.[20] 이와 다른 맥락에서 힘을 발휘하여 시아버지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정을 통하고 있는 과부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21], 며느리를 죽이려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22] 그러나 이러한 변이 또는 생략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 대한 위압적 태도를 기반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가로막는 며느리에 분노하여 응징하려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며느리가 제시하는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각편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일부러 봐주지 않았거나 틀리게 본 점괘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준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이 밖에 시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대상을 며느리가 죽이지 못하게 막는 경우[23]도 있는데, 이러한 변이 역시 시아버지의 잘못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맞서는 며느리의 방식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처럼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갈등이 불거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는 시아버지와의 대립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아버지의 태도나 행

---

19) 최유봉(남, 81), 〈곽박과 이순풍의 복술(卜術) 경쟁〉, 『대계』 1-4, 한국정신문화원, 865-868쪽.

20) 차봉규(남, 67), 〈곽수선생과 며느리의 도술 다툼〉, 『대계』 7-10, 80-95쪽; 문채옥(남, 59), 〈점성가 곽백〉, 『대계』 5-4, 한국정신문화원, 538-550쪽; 권은순(여, 84), 〈곽곽선생 이순풍〉, 『대계』 1-9, 한국정신문화원, 476-478쪽.

21) 정태규(남, 63), 〈꽉꽉선생과 며느리 (2)〉, 『대계』 1-7, 한국정신문화원, 892-895쪽; 송분임(여, 60), 〈꽉꽉선생과 며느리 (1)〉, 『대계』 1-7, 한국정신문화원, 891-892쪽.

22) 정태규(남, 63), 〈꽉꽉선생과 며느리 (3)〉, 『대계』 1-7, 한국정신문화원, 895-896쪽.

23) 정태규(남, 63), 〈꽉꽉선생과 며느리 (2)〉, 『대계』 1-7, 한국정신문화원, 892-895쪽; 송분임(여, 60), 〈꽉꽉선생과 며느리 (1)〉, 『대계』 1-7, 한국정신문화원, 891-892쪽.

동이 잘못되었다는 판단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행동에는 가족이라는 운명공동체로서 사회적 정의와 규범을 위반한 시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며느리는 명철한 판단력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이 일로 인해 자신이 시아버지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면서도 자신의 판단을 관철하는 담대함을 보인다.

시아버지는 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사람의 점은 거절하는[24] 등 자신의 이익에 준하여 득이 되지 않는 타인과의 관계에 냉소적이다. 또는 능력 부족으로 점괘를 잘못 보아도 그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잘못을 들추어낸 며느리[25]나, 제3자[26]를 응징하려 한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권위와 명성을 중시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업신여기고 경시하는 냉소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제3자가 던지는 질문은 삶의 의지와 생존의 절박함에 대한 것이기도 하면서, 이에 대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철학을 드러내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3자의 질문이 며느리와 시아버지에게 혼자서 살아남을 능력은 없으나 생존에 대한 절실함을 가진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답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아버지는 냉소적 태도로 일관하는 데 반해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그러한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구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

---

24) 홍갑춘(남, 68), 〈곽박과 그 며느리〉, 『대계』 4-3, 한국정신문화원, 541-543쪽; 권은순(여, 84), 〈곽곽선생 이순풍〉, 『대계』 1-9, 한국정신문화원, 476-478쪽.

25) 최유봉(남, 81), 〈곽박과 이순풍의 복술(卜術) 경쟁〉, 『대계』 1-4, 한국정신문화원, 865-868쪽; 문채옥(남, 59), 〈점성가 곽백〉, 『대계』 5-4, 한국정신문화원, 538-550쪽.

26) 정태규(남, 63), 〈꽉꽉선생과 며느리 (2)〉, 『대계』 1-7, 한국정신문화원, 892-895쪽; 송분임(여, 60), 〈꽉꽉선생과 며느리 (1)〉, 『대계』 1-7, 한국정신문화원, 891-892쪽.

〈표 8〉 설화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의 위기 모티핌의 관계적 요소

관계적 요소	며느리	시아버지	제3자
태도	직면	냉소적	절실
행동	정면 대립	응징	질문
감정	수치심	분노	·
능력	판단력	·	없음

3) 대응 모티핌의 관계적 화소에서 추출한 관계적 요소

며느리는 자신을 응징하기 위해 찾는 시아버지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신한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우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물이 마른 개울에 들어가 모래를 덮고 개울물에 빠져 죽었다고 위장하기도 하고, 재가 든 독에 들어가 불에 타 죽었다고 위장하기도 한다. 이 세 방법이 모두 등장하는 각편[27]도 있으나, 물에 빠져 죽었다고 속이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힘 대결로 위력면에서는 시아버지가 우세하고 지략면에서는 며느리가 우세하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각편에 따라 며느리가 몸을 숨기는 부분이 생략되기도 하지만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살의를 감지하고 이를 피해 살아남기 위해 대항에 나선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보다 앞서는 예지력이나 판단력은 물리적으로 시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성질의 힘이 아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한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제압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항전에 나서며 우선 이에 대한 남편의 입장을 확인한다. 여기에서 승리를 위한 며느리의 전략은 남편에게 누가 옳은가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다. 남편은 아버지보다 아내가 더 필요하다고 하며 아내의 항전에 동의를 표명한다. 이는 남편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가 아니

27) 최유봉(남, 81), 〈곽박과 이순풍의 복술(卜術) 경쟁〉, 『대계』 1-4, 한국정신문화원, 865-868쪽.

라 정당성과 그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힘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아버지가 자신을 해치는 데 동원하려고 하는 물리력을 역이용하는 계책을 세운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해치기 위해 경을 읽기도 하지만[28], 대체로 저승사자를 소환하여 저승사자에게 며느리를 잡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물리력은 그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힘을 가진 다른 존재로부터 빌려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며느리는 저승사자가 직접적인 원한으로 자신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저승사자가 자기 대신 시아버지를 잡아가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아버지의 옷을 걸어 저승사자에게 잡아갈 사람을 표시하기도 하고[29], 곽 속에 숨어 까마귀가 '꽉-꽉'하고 울게 하여 '곽'씨인 시아버지가 대신 잡혀가게 하기도 하고[30], 저승사자를 대접하여 자기를 못 잡아가게 하고 시아버지가 대신 잡혀가게 하기도 하고[31], 이미 죽은 것으로 속이기도 하고[32], 시아버지가 읽는 주문을 망쳐 저승사자가 시아버지를 잡아가게 하기도 하고[33], 죽을 사람의 이름을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죽음을 모면하기도 한다.[34] 또는 구체적인 방법이 생략되기도 한다.[35] 이러한 변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그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사용하려 한다는 점을 간파하고 그 점을 공략한다는 점에서는

---

28) 송분임(여, 60), 〈꽉꽉선생과 며느리 (1)〉, 『대계』 1-7, 한국정신문화원, 891-892쪽.

29) 최유봉(남, 81), 〈곽박과 이순풍의 복술(卜術) 경쟁〉, 『대계』 1-4, 한국정신문화원, 865-868쪽.

30) 차봉규(남, 67), 〈곽수선생과 며느리의 도술 다툼〉, 『대계』 7-10, 한국정신문화원, 80-95쪽.

31) 정태규(남, 63), 〈꽉꽉선생과 며느리 (2)〉, 『대계』 1-7, 한국정신문화원, 892-895쪽.

32) 문채옥(남, 59), 〈점성가 곽백〉, 『대계』 5-4, 한국정신문화원, 538-550쪽.

33) 권은순(여, 84), 〈곽곽선생 이순풍〉, 『대계』 1-9, 한국정신문화원, 476-478쪽.

34) 송분임(여, 60), 〈꽉꽉선생과 며느리 (1)〉, 『대계』 1-7, 한국정신문화원, 891-892쪽.

35) 홍갑춘(남, 68), 〈곽박과 그 며느리〉, 『대계』 4-3, 한국정신문화원, 541-543쪽; 정태규(남, 63), 〈꽉꽉선생과 며느리 (3)〉, 『대계』 1-7, 한국정신문화원, 895-896쪽.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며느리를 해치려는 시아버지의 집요함은 불안에서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시아버지는 자신을 능가하는 며느리의 힘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불안의 근원을 며느리에 전가하며 며느리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는 며느리를 제압할 만한 힘이 없어 그러한 힘을 가진 존재에게 부탁하여 힘을 빌리려 하는데, 이 점이 자충수가 된다. 그 힘은 시아버지가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작동 원리를 간파한 며느리에게 역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표 9〉 설화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의 대응 모티핌의 관계적 요소

관계적 요소	며느리	시아버지	제3자
태도	당당	집요(불안)	지지
행동	대항	공격	동의
능력	문제해결(해결책 찾기)	청탁	없음

4) 결과 모티핌의 관계적 화소에서 추출한 관계적 요소

이 모티핌에서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대결 결과가 각 인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낸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 의해 자신이 불러낸 저승사자에게 잡혀가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시아버지는 며느리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파멸에 이르게 된다.

〈표 10〉 설화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의 결과 모티핌의 관계적 요소

관계적 요소	며느리	시아버지
상태	승리	파멸

3.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의 관계적 요소

본고에서는『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25편을 발견하여 정리한『문학치료 서사사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에 포함되어 있는 각편은 총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유형은 며느리가 뀐 방귀의 위력에 시댁 시구들이 깜짝 놀라며 끝나는 유형이다. 2유형은 방귀의 위력에 놀란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를 내쫓는 데서 끝나는 유형이다. 3유형은 며느리가 쫓겨나 친정으로 가는 길에 방귀를 뀌어 시아버지가 먹고 싶어 하는 배를 따주는데, 친정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시댁 식구들의 옹졸함을 비판하며 딸을 다른 데로 시집보내는 유형이다. 4유형은 며느리를 친정으로 내쫓으려다가 며느리가 방귀로 배를 따는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다시 받아들이는 유형이다.[36] 이처럼 유형을 구분한 이유는 유형마다 종결되는 지점이 다르고 이로 인해 추출할 수 있는 관계적 요소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4개의 유형 가운데 4유형만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절연의 위기를 극복하고 화합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에 주목하기 위해서이다.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 4유형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을 등장인물의 행동, 관계 맺기 방식 등이 드러나도록 각 모티핌에 해당하는 핵심 화소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6) 본 연구를 위해 검토한 총 25편을 각 유형별로 분류한 서지사항 목록을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11〉 설화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의 핵심 화소

모티핌	관계적 화소
결합(결연)	방귀를 뀌지 못해 얼굴이 노랗게 된 며느리 며느리의 안색을 보고 이유를 묻는 시아버지 방귀를 참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며느리 며느리에게 방귀를 마음대로 뀌라고 하는 시아버지
위기	방귀로 가족과 세간살이를 공중에 날아가게 한 며느리 며느리 방귀의 위력을 확인하고 며느리를 쫓아내는 시아버지 시댁에서 쫓겨나는 며느리
대응	며느리를 친정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길을 나서는 시아버지 배나무에 열린 배를 먹고 싶어 하는 시아버지 방귀로 배나무에 열린 배를 따는 며느리 방귀로 돈 번 며느리(비단장수의 비단과 배 맞바꾸기, 세금 받으러 온 관리 내쫓기, 재주로 임금에게 받은 포상) 쓸 만한 방귀라며 며느리를 도로 데리고 온 시아버지
결과	남편과 잘 사는 며느리

1) 결합(결연) 모티핌의 관계적 화소에서 추출한 관계적 요소

이 작품에서 시아버지는 다른 두 작품과 달리 재력이나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지 않는다. 다른 두 작품에서 시아버지가 시아버지라는 위치에 재력 또는 뛰어난 힘을 더해 며느리에게 위압감을 주는 데 비해 이 작품에서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이목이 더 집중된다. 다른 두 작품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입장 차이가 제3자의 등장으로 인해 확인되는데, 이는 직접적인 소통으로 서로 간에 차이를 가늠할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소통 불능의 상태라는 것을 방증한다. 물론 이 작품에서도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소통을 시도하기 전에는 시아버지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시아버지가 싫어할 만한 모습은 감추려고 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소통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고, 부딪히고, 이해하는 과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 소통의 힘과 소통을 가능케 하는 태도, 행동 방식 등을 가늠할 수 있다.

이 모티핌에서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내재하고 있는 힘, 성향, 사회적 태도, 추구하는 가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며느리는 얼굴이 노랗게 변할 정도로 방귀를 참으며 지낸다. 이는 시아버지에게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시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시기상조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보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모습은 감추어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라 할 수 있다. 며느리의 이런 태도에는 시아버지와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바람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며느리가 이렇게 방귀를 참는 이유는 자신의 방귀가 보통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며느리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이는 위기와 대응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이상 징후를 눈치채고 이유를 묻는 자상한 인물이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참느라 고생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하라며 며느리의 걱정을 다독인다. 시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구성원의 약점까지 포용하는 성향과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화목함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설화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의 결합(결연) 모티핌의 관계적 요소

관계적 요소	며느리	시아버지
힘	생산력	관찰력
성향	인내	포용
태도	배려	배려
가치	화목	화목

2) 위기 모티핌의 관계적 화소에서 추출한 관계적 요소

세 작품은 모두 며느리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시아버지와 다른 자신의 소견, 삶의 방식을 드러내면서 갈등과 위기가 촉발된다. 여기에서는 며느리가 그동안 억눌러 왔던 힘의 진면모를 드러내면서 시아버지와 절연의 위기를 겪게 된다. 며느리의 방귀는 큰바람을 일으켜 사람과 세간살이를 날려가게 할 정도로 위력적이다. 며느리는 이로써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시아버지에게 드러내며 소통을 시도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는데, 시아버지에게 며느리의 비범함은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힘이기 때문이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낯선 힘을 두려워하며 가족에게 해가 되는 힘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며느리의 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에게 며느리의 힘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힘을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며 며느리를 가족을 위험에 빠트리는 존재로 규정하게 되는데, 이는 며느리에 대한 유대감과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평화는 아무런 문제도 불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룬 신기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가족 집단에서 추방하여 다른 구성원을 보호하려 한다.

〈표 13〉 설화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의 위기 모티핌의 관계적 요소

관계적 요소	며느리	시아버지
태도	소통	소통
행동	자기 노출	추방
감정	용기	거부감
능력	알 수 없음	·

3) 대응 모티핌의 관계적 화소에서 추출한 관계적 요소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친정에 데려다주기 위해 길을 나선다. 대부분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나서지만 각편에 따라 아들(남편)이 동행하기도 하고[37], 시아버지도 동행하지 않기도 한다.[38] 아들이 시아버지와 동행하는 경우 아들은 서사의 진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아들만 가는 경우는 아들이 시아버지 대신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역할을 한다.[39] 또는 누구의 동행도 없이 며느리가 혼자 친정으로 향하던 중 방귀로 큰돈을 벌어 시댁으로 가지고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며느리 방귀의 쓸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결정은 시부모에 의해 내려진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며느리에게 시아버지의 동행은 관계의 국면을 전환할 기회가 된다. 더 이상 시아버지에게 감추는 것 없이 자유로워진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배나무에 열린 배를 따서 먹고 싶어 하면서도 따지 못하자 방귀로 배를 따서 드린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거부감을 표시한 바로 그 힘으로 시아버지가 하고 싶어 하지만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해낸다. 이로써 며느리는 방귀의 용도와 쓸모를 입증하게 된다. 각편에 따라 배를 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비단장수와 비단을 두고 내기를 하여 비단을 얻기도 하고[40], 임금에게 재주를 인정받아 상을 받기도 한다.[41] 이 역시 며느리 방귀의 생산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며느리는 이로써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시아버지에게 위험인물로 지목되어 쫓겨나면서도 시아버지에게 필요한 것, 시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 드리려는 존중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며느리의 선의를 드러내어 위력적인 힘으로 가족들을 위험에 빠트리지

37) 이금봉(여, 71), 〈방귀 잘 뀌는 며느리〉, 『대계』 1-2, 한국정신문화원, 271-273쪽; 조한순(여, 58), 〈방구장이 며느리〉, 『대계』 4-6, 한국정신문화원, 595-597쪽.

38) 박태희(여, 55), 〈며느리와 방구소동〉, 『대계』 5-1, 한국정신문화원, 285-287쪽.

39) 손분순(여, 64), 〈씨할 방귀〉, 『대계』 8-14, 한국정신문화원, 490-492쪽.

40) 조한순(여, 58), 〈방구장이 며느리〉, 『대계』 4-6, 한국정신문화원, 595-597쪽. 박태희(여, 55), 〈며느리와 방구소동〉, 『대계』 5-1, 한국정신문화원, 285-287쪽. 한광주(남, 76), 〈방귀장이 며느리〉, 『대계』 5-7, 한국정신문화원, 517-520쪽.

41) 박태희(여, 55), 〈며느리와 방구소동〉, 『대계』 5-1, 한국정신문화원, 285-287쪽.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는데, 이는 방귀의 진가와 며느리를 오해하여 내쫓으려 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4〉 설화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의 대응 모티핌의 관계적 요소

관계적 요소	며느리	시아버지
태도	존중	수용
행동	능력 입증	잘못 인정
능력	생산력	가치 발견

4) 결과 모티핌의 관계적 화소에서 추출한 관계적 요소

여기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오해와 불안을 불식시키고 관계의 결속을 다지게 된다. 며느리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미루어둘 수 있었으나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을 통해 서로의 진면모를 대면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전보다 더 단단한 관계로 거듭나게 된다.

〈표 15〉 설화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의 결과 모티핌의 관계적 요소

관계적 요소	며느리	시아버지
상태	결속	결속

Ⅲ. 서사지도와 관계 그래프

1. 서사지도

며느리-시아버지 대립담에서 추출한 관계적 요소를 기반으로 서사지도

를 구축하며 기존 서사지도와의 조응성을 고려하여 기존 서사지도에서의 약호를 활용하였다. 기존에 구축한 서사지도는 '범남귀녀'형 설화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하고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우선 '범남귀녀'형 설화의 기본 구조는 '독신-만남-교감-결합-위기-대응-결과'였는데, 며느리-시아버지 대립담은 인연을 맺은 후 야기되는 위기와 대응, 그에 대한 결과를 기본 구조로 파악하였다. 이를 약호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모티핌별 약호 목록

한글명	영문명	약호(진하게)
결합	Bond	B
위기	Problems	P
대응	(Re) Action	A
결과	Result	R

그 다음으로 중심 인물과 관련한 약호를 설정하였다. '범남귀녀'형 설화는 남자를 중심으로 동반자와의 관계를 살폈기 때문에 '남자'와 '동반자'가 기본 관계 구도였으나 며느리-시아버지 대립담은 며느리를 중심으로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살피며 며느리를 새로운 세대의 표상으로, 시아버지를 기득권을 가진 세대의 표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각각 'new generation'과 'man in power'로 약호화하였다. 또한 제3자로 등장하는 심판자와 이웃, 동반자인 남편을 약호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7〉 등장인물별 약호 목록

한글명		영문명	약호(기울임)
며느리		New Generation	NG
시아버지(상대)		Man in Power	MP
제3자	심판자	Person (Judgment)	P (J)
	이웃	Person (Neighbor)	P (N)
	남편	Person (Companion)	P (C)

또 각 모티핌에 해당하는 관계적 화소에 기반하여 추출한 관계적 요소의 목록과 이를 약호화한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모티핌별 관계적 요소의 목록

결 합	위 기	대 응	결 과
• 힘 • 성향 • 태도 • 가치	• 태도 • 행동 • 감정 • 능력	• 태도 • 행동 • 능력	• 인물의 상태

〈표 19〉 관계적 요소별 약호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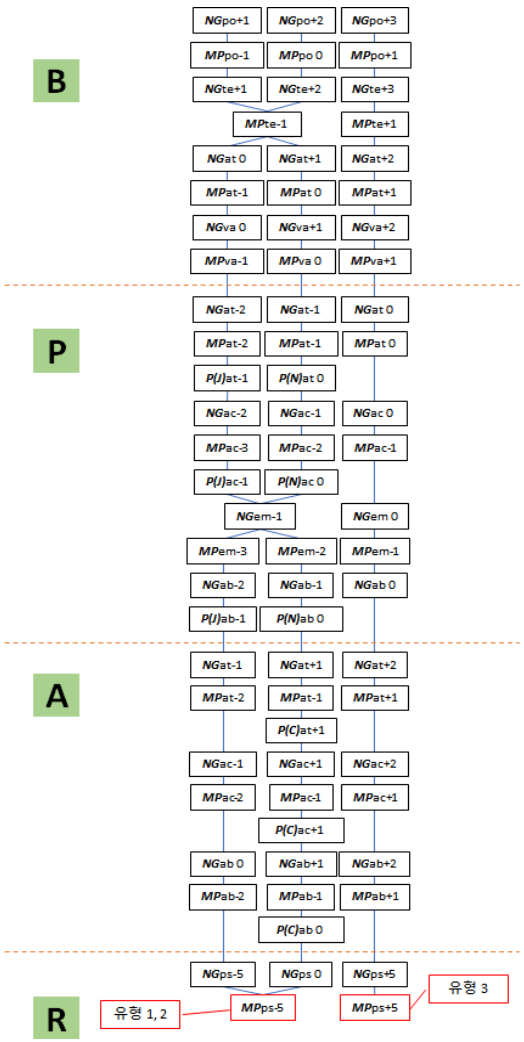
번호	한글명	영문명	약호
1	인물의 상태	person status	ps
2	행동	act	ac
3	힘	power	po
4	능력	ability	ab
5	가치	value	va
6	성향	tendency	te
7	태도	attitude	at
8	감정	emotion	em

그리고 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수치로 전환하여 반영하였다. 이는 〈장자못〉,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요소가 자기 자신과 상대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 모티핌별 관계적 요소와 그 수치

		며느리(NG)			시아버지(MP)			제3자	
								심판자(P(J))	이웃(P(N))/남편(P(C))
결합	힘	덕성 (+1)	예지력 (+2)	생산력 (+3)	물질적 부 (−1)	예지력 (0)	관찰력 (+1)	·	·
	성향	타인 중심 (+1)	이성적 사고 (+2)	인내 (+3)	자기 중심 (−1)		포용 (+1)	·	·
	태도	순종 (0)	불의에 대한 반항 (+1)	배려 (+2)	폐쇄적 (−1)	위압적 (0)	배려 (+1)	·	·
	가치	안정 (0)	정의 구현 (+1)	화목 (+2)	물질 (−1)	권위 (0)	화목 (+1)	·	·
위기	태도	회피 (−2)	직면 (−1)	소통 (0)	배타적 (−2)	냉소적 (−1)	소통 (0)	의심 (−1)	절실 (0)
	행동	은폐 (−2)	정면 대립 (−1)	자기 노출 (0)	조롱 (−3)	응징 (−2)	추방 (−1)	확인 (−1)	질문 (0)
	감정	수치심 (−1)		용기 (0)	알 수 없음 (−3)	분노 (−2)	거부감 (−1)	·	·
	능력	없음 (−2)	판단력 (−1)	알 수 없음 (0)	·	·	·	파괴 (−1)	없음 (0)
대응	태도	우유부단 (−1)	당당 (+1)	존중 (+2)	오만 (−2)	집요 (−1)	수용 (+1)	·	지지 (+1)
	행동	떠나지 못함 (−1)	대항 (+1)	능력 입증 (+2)	안주 (−2)	공격 (−1)	잘못 인정 (+1)	·	동의 (+1)
	능력	없음 (0)	문제 해결 (해결책 찾기) (+1)	생산력 (+2)	없음 (−2)	청탁 (−1)	가치 발견 (+1)	·	없음 (0)
결과	인물의 상태	파멸 (−5)	승리 (0)	결속 (+5)	파멸 (−5)		결속 (+5)	·	·

모티핌, 등장인물, 관계적 요소 등을 약호화하고 각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정보를 인물, 관계적 요소, 수치의 순서로 약호를 조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사지도를 구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며느리-시아버지 대립담의 서사지도

며느리, 즉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구축한 서사지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입장에서 자신과 기득권을 가진 세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격적인 위기가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유형 1에 해당하는 〈장자못〉은 본래 가지고 있는 힘, 성향, 태도, 가치 등 전반적인 관계적 요소에서 시아버지의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진다. 이에 비해 유형 2에 해당하는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에서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부정적 요소는 '성향'에서 '자기 중심'적인 것을 제외하면 아직 그 영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 유형 3에 해당하는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에서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두드러진다.

위기 모티핌에서는 며느리, 시아버지 모두에게서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진다. 이 모티핌에서 심판자가 등장하는 유형 1은 그 역할이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드러난다. 심판자는 시아버지의 태도, 행동을 드러나게 하여 갈등을 표면화하는 역할을 한다. 유형 2에서 이웃도 질문을 던지는 자로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삶의 태도, 행동 방식 등을 드러나게 하여 그 차이로 인한 갈등을 표면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심판자와는 대조적으로 그 자체로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

이 모티핌에서 부정적 영향의 가중치가 발생하는 관계적 요소는 시아버지의 행동과 감정이다. 유형 1에서 시아버지의 상대를 조롱하는 행동은 유형 2에서 응징하여 위해를 가하려 하는 행동에 비해 관계를 더 위태롭게 하는 부정적 요소이고, 응징은 유형 3에서 상대를 추방하는 행동에 비해 관계를 더 위태롭게 한다. 유형 1에서 시아버지의 감정은 '알 수 없음'인데, 이로써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 이는 유형 2에서 나타나는 시아버지의 분노보다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분노는 공격성을 내포하는 감정인데 비해 거부감은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과 결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의 정도가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

대응 모티핌에서 유형 2는 제3자인 남편이 아내, 즉 며느리의 지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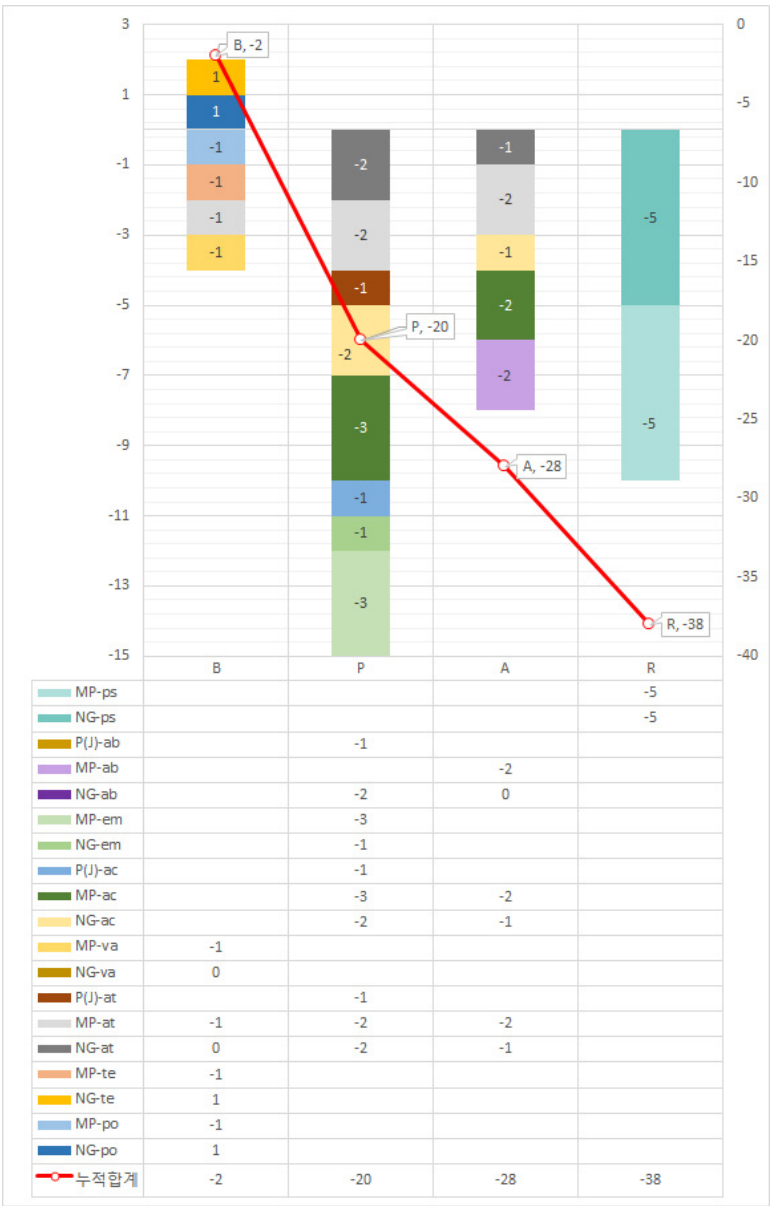
로서 개입하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형 2는 시아버지의 태도, 행동, 능력 전반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만 지지자의 지지와 며느리의 대응 방식의 긍정적 영향으로 이를 상쇄시킨다. 유형 1은 다른 유형과 달리 대응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나타나지 않으며 부정적인 요소가 쌓이는데 특히 며느리의 태도, 행동에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소들이 나타난다. 능력에서도 며느리는 '덕성'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음에도 '덕성'을 기반으로 한 위기 대응력을 보여주지 못하여 탈출구를 마련하지 못한다.

유형 3은 유형 1과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관계적 요소가 쌓여 나간다. 관계의 회복을 주도할 수 있는 요소로 며느리의 태도, 행동, 능력 전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시아버지의 태도, 행동, 능력 또한 유형 1과 2에 비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결과 모티핌에서 이전까지의 모티핌에서 나타난 관계적 요소의 결합이 인물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난다. 유형 1에서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모두의 파멸이, 유형 2에서는 대결에서 승리한 며느리의 안정과 대결에서 패배한 시아버지의 파멸이, 유형 3에서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서로 간의 결속을 다지며 위기 전보다 더 단단해진 관계로 거듭나는 결과가 나타난다.

2. 관계 그래프

관계 그래프는 며느리-시아버지 대립담에서 추출한 관계적 요소의 영향을 가시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서사지도에서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어떻게 쌓여 나가는지 보여준다면, 관계 그래프는 그 영향의 합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장자못〉,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의 관계 그래프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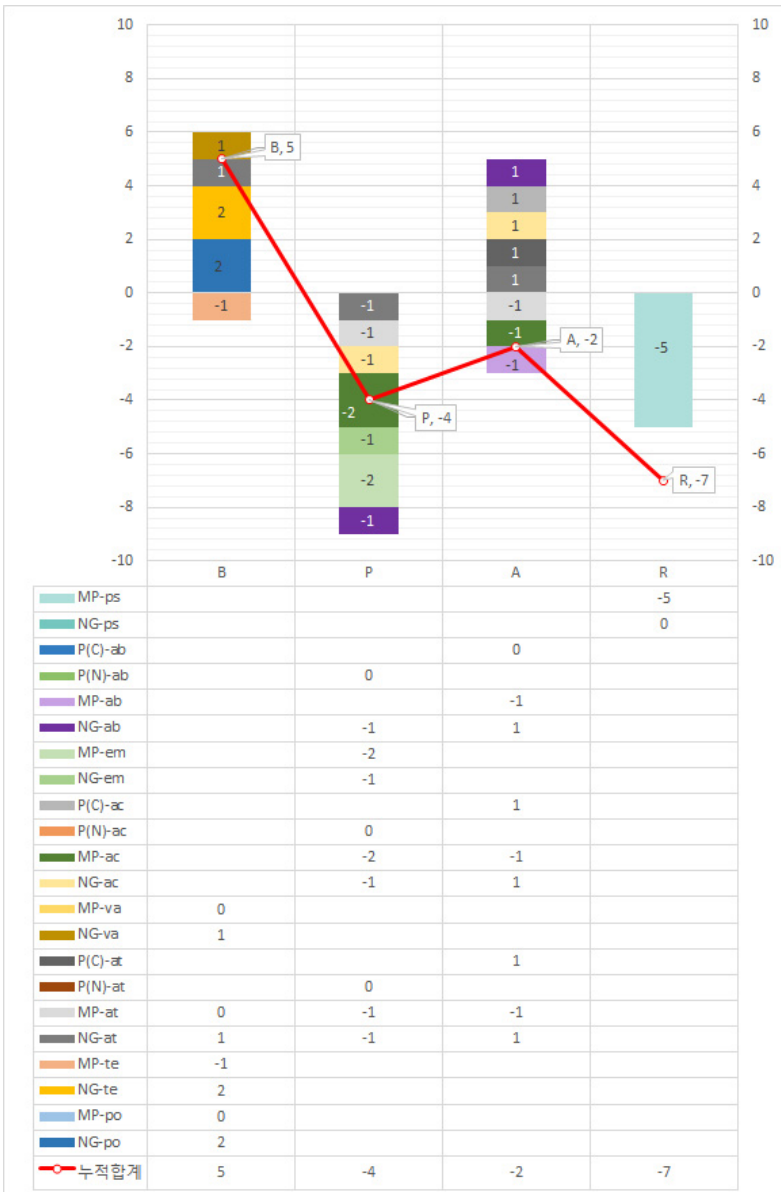


〈그림 2〉 유형 1, 〈장자못〉의 관계 그래프

〈장자못〉에서는 위기 발생 전, 결합 모티핌에서 이미 부정적 요소의 영향이 긍정적 요소의 영향을 앞선다. 며느리의 힘과 성향에서 긍정적 요소가 나타나지만 순종적 태도와 안정적 가치에 대한 추구가 대응 모티핌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나 삶의 기반을 떠나지 못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며 위기 대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이에 앞서 갈등이 불거질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태도, 드러내지 못하고 덮어두려는 행동이 며느리의 기본적인 태도나 추구하는 가치의 연장선상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긍정적으로 발현될지, 부정적으로 발현될지 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는 잠재태로 볼 수 있다.

〈장자못〉의 위기 모티핌에서는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난다.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과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에서도 위기 모티핌에서 하락세가 나타나지만, 〈장자못〉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태도, 행동, 감정, 능력 등 모든 요소에서 위기를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이 가중되며 하락세가 가장 급격하게 나타난다. 대응에서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하락세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모두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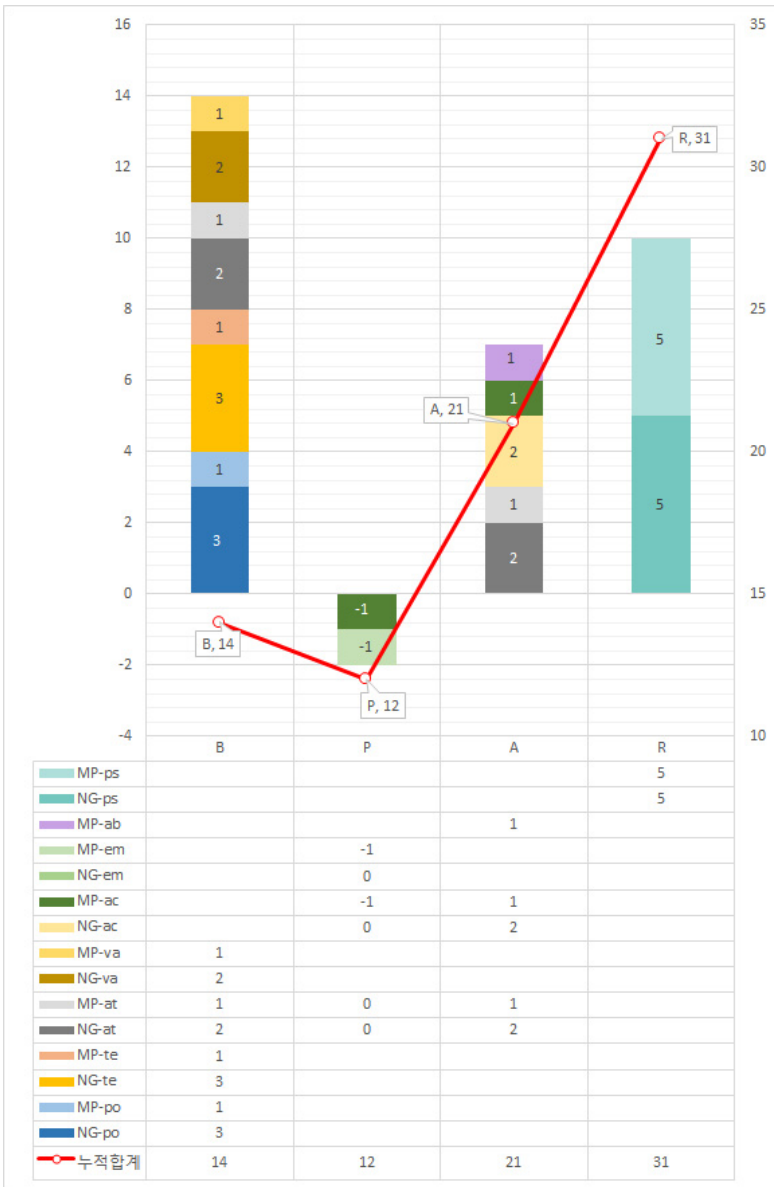
다음은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의 관계 그래프이다.



〈그림 3〉 유형 2,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 관계 그래프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에서도 위기 모티핌에서는 부정적 요소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 하락세가 〈장자못〉만큼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에서 발생하는 위기는 〈장자못〉만큼의 심각한 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에서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사회적 태도나 추구하는 가치에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한다. 또한 시아버지에게 자신의 이견이 알려져 대립각을 세우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다. 이는 위기 모티핌에서는 위기를 야기하는 요소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만 대응에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대응 모티핌에서의 반등은 시아버지의 권위에 밀리지 않는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와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하려는 의지의 행동,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 등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며느리는 동반자, 즉 남편의 지지를 얻어내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이 또한 대응 모티핌에서의 상승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서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하지만 대결의 상대인 시아버지의 파멸에 대한 부담이 하락세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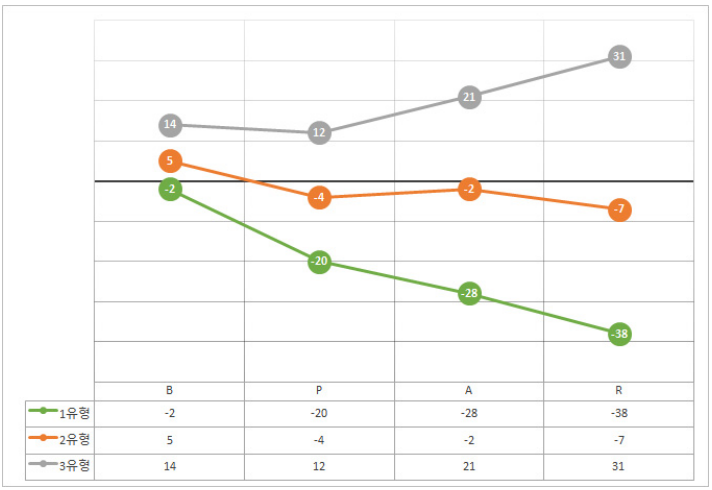
다음은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의 관계 그래프이다.



〈그림 4〉 유형 3,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의 관계 그래프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에서도 위기 모티핌에서 하락세가 나타나지만 그 하락세의 기울기가 가장 완만하다. 이는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에서의 위기가 다른 두 작품에 비해 심각성이 덜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며느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시아버지의 행동과 감정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대응 모티핌에서는 상승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변화하며 대응 모티핌에서 상승세의 급등을 만들어낸다. 물론 상승세를 주도하는 긍정적 요소는 며느리로부터 나타나지만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에서는 시아버지 역시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며 적절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응 모티핌에서 마련된 상승세의 기세는 결과에서도 이어진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다른 두 작품에서와 달리 위기 전보다 더욱 단단히 관계의 결속을 다지며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자못〉,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의 관계 그래프를 비교하여 보기 위해 한 데 모아 그린 관계 그래프이다.



〈그림 5〉 며느리-시아버지 대립담 관계 그래프

이 그래프를 통해 〈장자못〉,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의 결합 모티핌에서의 시작점은 위기나 대응 모티핌에서의 차이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차이는 위기에서보다 대응에서 더 크게 벌어진다. 〈장자못〉은 하락세로 일관하게 되는데 비해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과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는 반등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결과 모티핌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은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뿐이고 〈장자못〉이나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난다. 〈장자못〉은 며느리와 시아버지 모두 파멸에 이르기 때문에 하락세가 큰 반면,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은 시아버지만 파멸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장자못〉에 비해 하락세가 크지 않다.

IV. 결 론

이러한 서사지도의 구축은 구비설화의 서사를 오늘날의 인간관계의 문제로 환원하여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확보할 수 있다. 구비설화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에 필요한 조언, 위로, 통찰, 철학 등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은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와 노력에 의해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구비설화에 내재해 있는 무한한 해석과 활용의 가능성 가운데 특히 인간관계의 문제로 환원할 수 있는 지점을 포착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문학을 인간관계의 문제로 파악하는 문학치료학의 관점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장자못〉,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입장에서 세대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인지적 작동기제가 무엇인가 포착할 수 있는 서사지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장차는 이를 활용하여 세대 갈등의 원인을 포착 가능한가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 새로운 세대에 해당하는 자녀 세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갈등 상황 또는 부모 세대에 대한 반응 등을 심층 인터뷰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 자료의 분석을 통해 부모 세대와의 관계에서 자기 인식은 어떠한지, 부모 세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등을 서사지도에 나타난 관계적 요소와 대조하여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때, 서사지도의 효용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김정희, 「남녀관계의 위기와 지속에 대한 서사지도 구축과 문학치료 활용 연구」, 건국대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김현숙, 「현대소설에 표현된 '세대갈등' 모티브 연구」, 『상허학보』 6, 상허학회, 2000.

김혜미, 「초고령화 시대, 세대 갈등을 넘어 공존을 모색하다 –청소년의 세대 갈등 완화를 위한 문학치료학적 접근」, 인문한국연구소협의회 학술발표 자료집, 2019.

김화경, 『韓國 說話의 硏究』,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노영근, 「〈방귀쟁이 며느리〉 민담의 신화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16, 한국구비문학회, 2003.

신동흔, 「설화의 금기 화소에 담긴 세계인식의 층위 –장자못 전설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33, 비교민속학회, 2007.

신동흔, 「인지기제로서의 스토리와 인간 연구로서의 설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42, 한국구비문학회, 2016.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1.

정규식, 「〈방귀쟁이 며느리〉 설화에 형상화된 지배 질서의 변화와 그 의미」, 『동남어문논집』 44, 동남어문학회, 2017.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_____, 「서사의 다기성(多岐性)과 문학연구의 새 지평」, 『문학치료연구』 23,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1, 문학과치료, 2009.

_____, 『문학치료 서사사전』 3, 문학과치료, 2009.

최래옥, 『한국 구비전설의 연구』, 일조각, 1981.

하은하, 「문화적 맥락의 차이에 따른 설화 향유의 한 양상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설화 교육 시론」, 『고전문학과교육』 39,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Daniel J. Levinson, 김애순 역,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Building Epic-Map based on folk tale for resolution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Kim, Jeong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narratively identify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involved in grasping the cause and the nature of the generation conflict that causes serious social division today.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viewpoint of literary therapeutics that reveals the way of operating human relations and relationships in narrative. In other words, it is suitable to search for clues to the causes and solutions of various problems revealed in the operation of human relations today, because folk tales narrate prototypes of the way humans operate the relations.

This study aims to utilize the epic map as a tool to identify the cognitive structure of younger generation based on thes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folk tales. For this purpose, the conflict folk tales between daughter-in-law and the father-in-law have been analyze. This is because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ughter-in-law and the father-in-law in the folk tales tells the contemporary characteristics of today's generation of children and the parents' generation and that is appropriate to capture the contradictory aspect of today.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ree folk tales, <Jangjamot>, <Kwakbak who was jealous of his daughter-in-law>, <picking pear by daughter-in-law's fart>.

The narrative map constructed in this study extracts the motif related to

the human relationship in the folk tale and revert to the factor affecting the human relationship. Focu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cause of generation conflict and the solution method that appeared in each conflict folk tales between daughter-in-law and the father-in-law and visualized it as a narrative network. It is expected that if the epic-map is expanded from the viewpoint of this study as a starting point, it will be able to grasp the whole generation conflict.

Key Words : generation conflict, daughter-in-law and the father-in-law folk tales, folk tales, Epic-map, Literary Therapy

부 록

〈장자못〉 관련 서지 사항

〈표〉〈장자못〉『대계』 수록 현황

	번호	구연자	대계제목	대계 수록책	지역	수록면
단일 유형	1	김용규(남, 80)	龍井里의 용소(龍沼)전설	1-1	수유동	259-265
	2	강성직(남, 72)	귀래리 방아못 전설(장자못)	1-5	정남면	247-249
	3	남기재(남, 52)	황지 전설	6-3	과역면	259-260
	4	김봉한(남, 60)	황희정승과 황지못(장자못 전설)	7-13	대구시	477-480
	5	강대은(남, 81)	중을 괄시하여 생긴 황지목(장자못 유형)	7-9	복후면	675-676
	6	이강범(남, 57)	장자늪	1-4	구리읍	267-271
	7	조유란(여, 72)	장자못	7-6	달산면	291-292
	8	김진홍(남, 58)	장자못 전설	2-8	영월읍	555
	9	홍성수(남, 47)	황지 못과 돌미륵	7-10	소천면	563-565
	10	이우암(남, 71)	황지(黃地) '구멍소'의 전설	3-3	대강면	445-446
	11	김삼남(남, 74)	황지(黃池)의 장자못	8-13	상북면	552-553
	12	신동식(남, 65)	부자의 집터였던 황지못	7-9	예안면	847-849
	13	이철우(남, 72)	부도(浮屠) 유래	3-1	충주시	60-61
	14	이병순(남, 53)	장자못 전설	5-3	보안면	689-690
	15	엄기복(남, 73)	꼴두바위 꼴두각시 전설	2-8	영월읍	694-695
	16	안용인(남, 74)	장자못	9-1	구좌면	91-93
	17	이상희(남, 68)	상입석리의 장자못 전설	5-3	부안읍	112-114
	18	박동준(남, 73)	중을 괄시한 만석꾼, 장자못	7-2	외동면	62-64

	19	권태방(남, 83)	장자못	7-6	창수면	55-57
	20	박치관(남, 45)	아침못 전설	2-2	북산면	707-709
	21	류성만(남, 72)	장자못	8-3	금곡면	453-455
	22	황수용(여, 71)	장자못과 돌이 된 며느리	7-8	은척면	1176-1178
	23	최준성(남, 70)	안동부락 장자못 전설	6-8	북하면	156-158
	24	최용득(남, 61)	황지(黃池) 장자못의 유래	8-11	봉수면	631-633
	25	이영한(남, 63)	장자못 전설과 개바위 전설	5-3	보안면	718-719
	26	김일기(남, 52)	남양소 장자못 전설	2-3	삼척읍	157
	27	최춘원(남, 75)	장자못 다른 이야기	7-3	안강읍	516-518
	28	나도성(남, 70)	방아못 전설(장자못)	1-5	양감면	300-301
	29	권태일(남, 74)	장자늪 유래	3-1	충주시	80-81
	30	장의성(남, 75)	황지못 전설	1-8	영종면	500-501
	31	오정섭(남, 55)	영변 장자못 전설	2-7	둔내면	145-148
	32	최정자(여, 41)	보안면 웃선돌의 장자못 전설	5-3	줄포면	310-312
	33	심상원(남, 64)	제천 의림지 전설	3-3	매포읍	280-281
	34	김도연(여, 68)	장자못	8-7	무안면	539-540
	35	함종태(남, 64)	경포와 할미바위	2-1	강릉시	157
	36	박연악(여, 72)	의령 북실 장자못	8-11	지정면	475-477
	37	최만교(남, 61)	영산 장자늪	8-11	정곡면	108-109
	38	김진홍(남, 58)	의림지 장자못 전설	2-8	영월읍	555-556
	39	김일남(남, 69)	장자못 전설	6-8	장성읍	52-53
	40	박석산(남, 70)	아침못 전설	2-2	신북면	353-355
	41	류태석(남, 67)	집터가 변해서 된 황지 못	7-9	임동면	292-294
	42	김사형(남, 89)	부안읍 장자못 전설	5-3	부안읍	141
	44	노봉현(남, 80)	중을 괄시하다 패가한 이야기	8-14	악양면	570-571
	45	정복련(여, 57)	삭실늪이 생긴 유래	8-11	정곡면	168-170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 관련 서지 사항

〈표〉 〈며느리를 시기한 곽박〉『대계』 수록 현황

	번호	구연자	대계제목	대계 수록책	지역	수록면
단일 유형	1	최유봉 (남, 81)	곽박과 이순풍의 복술(卜術) 경쟁	1-4	진접면	865-868
	2	차봉규 (남, 67)	곽수선생과 며느리의 도술 다툼	7-10	봉화읍	80-95
	3	정태규 (남, 63)	꽉꽉선생과 며느리 (2)	1-7	내가면	892-895
	4	홍갑춘 (남, 68)	곽박과 그 며느리	4-3	둔포면	541-543
	5	문채옥 (남, 59)	점성가 곽백	5-4	개정면	538-550
	6	정태규 (남, 63)	꽉꽉선생과 며느리 (3)	1-7	내가면	895-896
	7	권은순 (여, 84)	곽곽선생 이순풍	1-9	원삼면	476-478
	8	송분임 (여, 60)	꽉꽉선생과 며느리 (1)	1-7	내가면	891-892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 관련 서지 사항

〈표〉 〈방귀쟁이 며느리의 배 따는 방귀〉『대계』 수록 현황

	번호	구연자	대계제목	대계 수록책	지역	수록면
1 유형	1	이선재(여, 61)	방구쟁이 며느리	7-1	현곡면	314
	2	김순이(여, 81)	방귀타령	1-7	길상면	322-323
	3	김옥림(여, 66)	방귀 이야기	1-7	화도면	554-556
	4	허창(남, 65)	방귀 잘 뀌는 며느리	1-2	점동면	411-413
	5	원장상(남, 81)	방귀쟁이 며느리	8-2	사등면	30-32
	6	구점선(여, 55)	방구 잘 뀌는 며느리	8-9	진례면	342-343
	7	신기수(남, 67)	천태산 마고할미 방귀	7-6	달산면	658

2 유형	8	심복동(여, 70)	방귀 잘 뀌는 며느리	8-9	주촌면	1152-1153
	9	김봉춘(남, 72)	방귀 잘 뀌는 며느리	6-2	월야면	564-567
	10	정점암(남, 82)	며느리 방구에 소리개가 된 시아버지	6-2	신광면	711-713
	11	강은상(남, 56)	방구 잘 뀐 며느리	6-6	하의면	547-548
	12	이창수(남, 60), 김옥금(여, 86)	며느리 방구 소동	6-9	동면	322-324
	13	임규임(여, 62)	며느리 방귀소동	5-1	금지면	444-445
3 유형	14	오수영(여, 68)	방귀쟁이 며느리	1-9	이동면	230-234
4 유형	15	한덕이(여, 79)	방구 뀌는 것이 소원인 며느리	7-18	개포면	399-400
	16	신기준(남, 65)	방귀 잘 뀌는 며느리	8-6	남하면	571-576
	17	이금봉(여, 71)	방귀 잘 뀌는 며느리	1-2	가남면	271-273
	18	김상옥(여, 60)	며느리 방귀	1-7	길상면	264-265
	19	조한순(여, 58)	방구장이 며느리	4-6	우성면	595-597
	20	박태희(여, 55)	며느리와 방구소동	5-1	송동면	285-287
	21	한광주(남, 76)	방귀장이 며느리	5-7	칠보면	517-520
	22	권수이(여, 62)	방귀로 배를 딴 며느리	7-10	명호면	848-849
	23	김봉열(여, 71)	방구쟁이 며느리	7-16	장천면	612-614
	24	이점순(여, 54)	쫓겨 갔다 돌아온 방귀 잘 뀐 며느리	7-17	용문면	572-573
	25	손분순(여, 64)	씨할 방귀	8-14	악양면	490-492